

“일상 되찾자” ... 광주, 코로나 백신 접종 ‘열풍’

접종을 전국 최고 ... ‘노쇼백신’ 맞기 병원마다 문의·예약 전화 폭주
민방위·예비군 대상 ‘안센백신’ 사전 예약자 몰려 사이트 불통되기도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백신일정에 따른 접종률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고, ‘노쇼백신’을 맞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막연히 접종순서를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 사이에선 지난달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등으로 노쇼백신 예약이 가능해진 이후 수시로 관련 앱을 검색하는 등 ‘노쇼백신 찾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일 0시부터 시작된 민방위·예비군 대상 안센백신 사전 예약은 새벽 한때 치열한 경쟁으로 예약 사이트가 불통되고, 16시간만에 마감됐다.

백신열풍에 일부 백신접종 의료기관에선 업무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비접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문의·예약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하소연이다.

배강숙 광주시 감염병관리 담당은 “광주는 백신접종 초기부터 타지역보다 접종률이 높았다”면서 “특히 최근 누적된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신뢰성 회복과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맞물리면서 백신접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광주시와 광주지역 위탁의료기관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한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광주 소재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설 40여곳에서 앱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는 지난달 27일 46명, 28일 63명, 29일 21명, 31일 19명 등 총 149명이다.

특히 3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당일 잔여백신을 맞기 위해 수시로 앱을 확인하는 게 유행처럼 번

지고 있지만, 잔여백신이 거의 없어 앱으로 예약·접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백신접종 열풍으로 예약 취소 등에 따른 노쇼백신이 귀하신 몸이 된데다, 광주에서 하루 평균 적게는 100명분에서 많게는 700명분 정도의 잔여백신이 기존 의료기관 전화·방문 예약자에게 접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국방 관련자만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역 코로나19 안센백신 예약률은 20.2%를 기록했다. 대상자 9만7000명 중 1만9641명이 예약을 마쳤다. 한차레만 접종하면 되는 안센백신은 예약 첫날인 이날 16시간여만에 전국 물량 100만명 분(대상자 370여만명)이 모두 마감·종료됐다.

광주에선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자도 이날 기준 접종대상자 총 30만8883명 중 1차 접종 18만7537명(60.7%), 2차 접종 6만8634명(22.2%) 등을 기록 중이다. 접종률(1차 접종 기준)은 광주시 전체 인구 대비 11.8%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광주시는 이날 현재 하루평균 1만명 안팎을 접종하는 등 이달 말까지 30만명 이상 1차 접종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백신 물량 확보시엔 하루 최대 4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백신접종 열기는 지난 26일 정부의 접종 인센티브 발표 이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7월 이후 2차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하고 각종 소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접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재 8명까지 모임 수 있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 1차 접종만 받더라도 이달부터 모임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영하관급제도 이날부터 한달동안 1차 이상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동반 1인까지 우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반 관람료의 절반 미만 수준인 5000~6000원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접종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광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침 발표와 앱을 통한 예약 등이 맞물리면서 잔여백신

접종을 묻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미 접수한 대기자가 많아 추가 예약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 당일 잔여백신을 앱에 올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무작정 병원으로 와 잔여백신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왜 남는 게 없느냐’며 화를 내는 분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잔여백신 접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병원관계자들은 그나마 잔여백신 접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점심시간 이후 자신의 활동지역 인근 접종 병원 여러곳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 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당일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 지역과 동떨어진 병원은 예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앱 알림기능을 통해 잔여백신 있는 병원을 체크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이 1일 오후 나주 빛가람동 부지에서 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켄텍’ 착공 ... 내년 3월 개교 ‘연구 인프라’ 확충 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1일 착공했다. 정부·지자체·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투자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다. 2017년 7월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제안으로 광주전남의 상생 과제로 부상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치 한전공대 설립 계획이 4년

여만에 현실화됐다. 캠퍼스 착공과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너지의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대학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

시장 등 지자체 단체장, 정승일 한전 사장, 윤의준 쉐프 총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표, 범시민단체 지 원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대학설립 및 캠퍼스 건설 현황 소개, 이사장과 총장의 환영사와 기념사, 총리 축사, 착공식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명과 영문명 선정 배경, 로고, 에너지 공대 이미지를 대내외 알리는 UI(University Identity) 선포와 착공 축하 영상 메시지, 전자·홍보 콘텐츠 운영,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등을 위한 대학 간 공동협력 협약 등이 착공식 전후로 열렸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환경과 기후 기술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양성과 기

술개발에 전념하고 국가산업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캠퍼스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학습·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6대 원칙을 적용해 건립한다. 6대 원칙은 상호작용 촉진, 학습공간 다양화, 온라인 학습, 휴식·재충전, 보행자 중심, 지역사회와의 연계다.

부지 40만㎡에 건물 15만4000㎡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된다. 수업을 진행할 강의실과 핵심 시설인 행정실은 지난달 착공했고 내년 2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분관동 3만㎡는 8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 1월 준공한다. 부족한 교사(校舍)는 10월에 완공하는 전력연구원 신하 에너지기술연구소를 빌려 사용할 계획이다.

학교 건립에는 2025년까지 모두 8289억원(부지비 1670억원 제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설립 시까지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 한전, 정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 전남도, 나주에서 첫 개최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등 국가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했던 남도 의병의 중심지 나주 금성관에서 1일 오후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관군이 아닌 의병 1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전라도 사람이었으며, 한말 일제와 교전한 의병의 45.5%인 1만7579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우리 모두의 의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관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장석웅 도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김원우 광복회장, 의병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주 금성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제2037호로 임진왜란 당시 김천익 의병장이 호남 최초의 의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다. 기념식에서는 시민 의병단 출정식을 비롯해 가수 장사익의 초청공연,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 기념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 지사는 추모사에서 “예로부터 전남은 의병의 고장으로 나라의 위기 때마다 수많은 의병 선열들이 이름 없이 희생하며 나라를 지켰다”며 “이런 구국충혼과 살신성인의 정신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의병정신이 필요한 때로, 조국에 헌신한 의병 선열을 기리고 그 정신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나주 공산면에 오는 2025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건립해 목숨 바쳐 싸운 의병을 기억하고 선열의 고난의 역사와 애국충정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5·18 계엄군과 경찰 피해도 조사한다 ▶7면
-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KIA 이정훈 ▶18면
-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22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만들기!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추진

안전문화 3·3·3 운동에 따른 3대 분야별(가정·학교·직장)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정시기** 2021. 12.
- 선정대상** 3개 분야
 - 안전마을 : 96개동
 - 안전학교 : 314개 학교(초·중·고)
 - 안전기업 : 1,126개소(제조업 766, 건설업 360)
 - * 재해빈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20인 이상 업체
- 선정규모** 6개소(안전마을·학교·기업 각 2개소 내외)
 - * 신청상황에 따라 분야별 선정 개소 수 변경 가능
- 선정방법** 안전마을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 안전학교·기업 : 정량평가 50% + 정성평가 50%
- 예산액** 총 60백만원
- 지원내용** 안전인증서 수여, 명판 제작식,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인증서 수여 : 분야별 인증(광주광역시장)
 - 인증명판 제작식 개최
 -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10백만원
 - 안전마을·학교 : 2천만원 상당 안전시설물 설치(A/S 포함), 안전컨설팅 무상지원
- 공모접수** 2021. 11월경
- 접수 및 문의** 분야별 담당부서
 - 안전마을 : 자치구 안전총괄 담당부서 (T. 동구 608-2805, 서구 360-7056, 남구 607-2951, 북구 410-8480, 광산구 960-3978)
 - 안전학교 :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T. 380-4874)
 - 안전기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T. 949-8704)
 - * 시 총괄부서 : 안전정책관실(T. 613-4933)

「2021 제3호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